

특허출원 등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 받으세요

-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에게 힘이 되는 무료변리 상담서비스 -
- 특허청, 6월부터 무료상담변리사 57명 신규 위촉·활동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신규 위촉*해 6월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상담변리사는 2년 단위로 위촉하여 운영(' 25.6월~' 27.5월)

대전(본청)은 매주 3회(화, 수, 목) 13시~17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서울사무소)은 매주 5회(월~금, 휴일 제외) 오전 9시~17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96년 서울(서울사무소)에서 시작하여 대전(본청)은 '1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남성호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이번 상담변리사 신규 위촉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출원 등 전반에 관하여 전문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042-481-5221, 5224)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02-3458-22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보국	책임자	과 장	남성호 (042-481-5192)
	산업재산출원과	담당자	서기관	권인국 (042-481-5221)